

2008 새해설계 ③

법무부범죄예방위원회 포천시지구협의회장 하재인

학교 상담교사와 연계 청소년 선도업무 추진계획

존경받는 범죄예방위원상 정립으로 업무효율성 제고



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해당하지 않는 자를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범죄예방위원은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범죄예방에 대한 상담지도, 범죄예방에 대한 취업알선·재정지원 등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으로는 학교주변교통지도·순찰 및 유해환경 감시·계도, 학교폭력 등 청소년 선도보호, 범죄예방활동 전개 및 청소년문화공간 조성 등 건전한 청소년문화활동을 지원하고 가두캠페인, 포스터 부착, 전단지 배포 등 범죄예방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범죄예방위원은 명예직 자원봉사자로서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 신망을 받으며 사회봉사에 열의가 있어야 하고, 신체건강하고 활동력이 있으며 국가공

방위원, 기타 사회자원 등 연계망을 구성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원호 및 재정지원 등 범죄예방의 자활·자립 지원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원호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재범을 방지하고 생계곤란대상자 등에 대한 무료진료 등 의료사혜·약품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하 회장은 "중학생들의 우발적으로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순간의 잘못을 깨닫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도한 결과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으로 성장할 때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계획에 대해 하 회장은 "전입 송신석 회장이 고생하신 것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며 "포천교육청과 협의하여 상담교사를 활용하여 학생상담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포천사회에서 존경받는 범죄예방위원들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고취해 나갈 계획이며 불우시설 돌보기, 우범지역 순찰

등 고유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하 회장은 학교운영위원들이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천교육청에서도 상담교사를 활용한 청소년 선도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8년 법무부 범죄예방 포천시지구협의회 조직표는 다음과 같다.

▶고문 이한철 송신석 ▶회장 하재인 ▶감사 김원태 김명미 ▶사무국장 홍성철 ▶수석부회장 전영갑 ▶부회장 이범성 권종현 조광원 김호 최병욱 ▶상담지도분과 박용우 이팔하 윤봉현 채인석 지용림 고일권 이기양 김연경 김상호 ▶소년선도분과 박도식 박정기 이원구 윤석준 박삼국 송진복 우용철 장명수 노승현 ▶경생보호분과 김남정 한태환 강성진 ▶여성지원분과 박정희 김정호 김영수 신현옥 전인숙 이재숙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2008년1월17일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돼 2년의 임기를 시작한 하재인(57·사진) 법무부범죄예방위원회 포천시지구협의회장은 "한순간 실수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이 본인의 실수를 깨닫고 열심히 노력하여 사회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임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예방위원은 명예직 자원봉사자로서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 신망을 받으며 사회봉사에 열의가 있어야 하고, 신체건강하고 활동력이 있으며 국가공

새인물 한응수 영종면 생활안전위원장

“주민 안전 지켜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겠다”



포천경찰서 영종파출소 영종생활안전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한응수(52·사진) 포천의용소방대 부대장연합대장이 1월11일 취임식을 갖고 활동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 그동안 근면성실한 생활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생활안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오신 최면홍 위원장님의 노고가 잊히지 않도록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영종면 지역 발전과 주민화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영종파출소, 면사무소 등 행정기관과 자율방범대 및 어머니자율방범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범죄와 사고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 보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위원장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양문4리 이장직을 수행했고 생활안전위원 8년 봉사하면서 부위원장, 사무국장을 거쳐 위원장으로 취임했으며 1990년부터 영종면의용소방대장으로 17년째 봉사하면서 부대장으로 포천의용소방대 부대장 연합대장직을 올해부터 수행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목회단상

멀고도 가까운 이웃!



김창성 내음감리교회 목사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누군가의 도움과 위기가 필요하다. 한 마디의 말이 큰 힘이 되기도 하고 용기가 되어서 기사 회생(起死回生)하는 경우를 갖는다.

그러므로 몸의 거리만 가까운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 우스운 이야기로 숙된 말이 아니고 옆에서 편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한층 무모스런 이야기다. 남편이 힘들 때 위로해주고 의기소침(義氣鎔心)해 할 때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는 재기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인도의 네루 수상을 '결에 앉

았던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 말은 힌두교의 고전(古典) '우파니시야드' 즉 '결에 앉는다'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는 힌두교도로써 평화를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했다. 그는 가난한 동족의 곁에 앉아 있었고 동서양진영(東西兩陣營)의 곁에 앉아 평화를 모색했다.

가까이 있어도 먼 이웃이 있는가 하면 멀리 있어도 늘 기도하고 전화로도 늘 대화의 끈이 이어진다면 가까운 이웃이다.

세상에는 멀리 앉아 남의 흉을 보고 수군거리는 사람이 많다. 곁에 앉아 이해하려는 심정으로 남의 이야기를 진실하게 들어 주는 사람은 적다. 그러한

자세에 너무 익숙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의 곁에 앉았다. 창녀와 병자들의 곁에 앉았다. 심지어 십자가의 운명(殞命)하는 순간까지 사형수(死刑囚)의 곁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 주셨다.

그러므로 성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다. 마태복음 28장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문의) 031-532-2489

특별기고

통일 후 토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②



서희석 대성저축은행 본부장 대표이사

북한 토지의 사유화 방안(1)

현 남한의 토지제도는 헌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과 한계가 법률유보사항에 있다고 해석되는 바 통일 한국의 토지사유화 원칙에 있어 크게 문제되는 점은 없으나, 북한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북한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소유 개념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 북한 토지의 사유화 방안이 중시적 문제이다.

① 사유화 주제 북한 지역 토지를 사유화하기 위해서는 주제 확정기 매우 중요하다.

통일 한국의 경우 러시아, 헝가리와 같이 하나의 체제 내의 제도 개혁이 아니라 상이한 체제의 결합에 의한 토지제도 개혁이므로 독일과 같이 독립된 공법인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독립된 공법인은 남북의 토지 관계 전문가와 정부, 기업의 대표에 의하여 구성된 토지 사유화 추진기관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만약 통일 전 혹은 통일 단계에서 북한 정부가 특정 집단에 토지 불하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이는 통일 한국 이념에 불합치하는 행위로 이러한 조치는 당연히 무효화되어야 한다.

또한 토지 사유화 추진을 위

하여 구성되는 토지사유화전담기관은 앞서 언급한 토지관리기관의 구성 부분이 된다.

② 사유화 방향 북한 토지의 사유화에는 반드시 남북한의 과거 재산권 문제의 선결이 요구된다.

즉 분단으로 인하여 침해된 구재산권 문제의 해결이 확정되지 않은 북한 지역의 단순 사유화는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북한 토지 사유화는 과거 재산권 문제의 선결을 충족조건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통일 한국의 이념은 자주, 민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대원칙 아래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율이 라는 세부적 문제의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이때 통일 후의 북한 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여야 한다.

남북통일시 통일 부담에 대한 측면에서 남한 주민이 실질적 통일 비용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통일에서 오는 이득의 직간접적 수혜자이므로 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북한의 경우에는 통일에 따른 부담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에 일정 기간 북한 지역에는 세금을 면제하고,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 지역 토지에 대한 1차적 권리 취득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북한 주민의 이해 보호를 꾀하여야 한다.

또한 남북한 간의 이해 조율에 따른 평등 조율과는 별개로 북한 주민 상호 간의 평등 조율에 대하여는 제도 장치가 모색되어야 한다.

생산 수단의 소유가 제한되었다 하지만 북한에도 사실상의 민부의 차가 있으며, 토지 이용자와 공장 노동자, 상업의 점원, 공무원 등 토지 비이용자가 대별되므로 토지 사유화에 따른 상대적 권리 보호 조치도 평등의 원칙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북한의 토지 사유화는 남북 주민 간, 북한 주민 간의 평등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북한의 국유재산 제도를 사유 재산 제도로 전환할 때 전환 속도가 주요 문제로 제기되는데, 이는 단계적 처리가 타당하다고 본다.

우선 50년 이상 사회주의적 소유 관념에 젖은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는 시간이 요할 뿐 아니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 관계의 제도 유형을 위하여 시간적 여유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일 부담을 감수시키는 측면에서 단계적 사유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차상구가 있어 포천·연천이 든든합니다 대한민국이 든든합니다”



후원안내 -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법인과 단체는 후원하실 수 없습니다. - 후원회원이 아닌 분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행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후원하시는 분들께 10만원까지는 전액 환급해 드리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예금주 김영철(후원회장) 농협 989-02-049403

무자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4월9일 총선, 포천·연천에 임후보 차상구 예비후보의 후원회장 김영철입니다.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사명을 이뤄낸 2008년-이명박 정부가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는 해입니다. 무엇보다 새 정부는 경제 회생에 주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 정부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입니다.

경제강국은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경제드림팀'이 있어야 합니다. 포천이 낳은 미시카고의 성공신화, 세계를 경험한 글로벌 경제전문가 차상구가 이명박 정부에 필요한 깨달입니다.

정권교체로 우리의 할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을 꺼내 주십시오. 차상구 예비후보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포천·연천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 포천·연천예비후보 차상구 후원회장 김영철 올림

싸릿재 부페(이동갈비)

실속있는 가격을 추구하는 일동싸릿재부페는 언제나 100% 정성을 다해 고객을 모시겠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아기 백일, 돌 행사, 아버님, 어머니님 환갑, 칠순 행사, 결혼식, 피로연, 각종 단체 모임

주소: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800-3번지, 전화: 031)536-9445, 핸드폰: 019-470-9445, 팩스: 031)536-7694